

## 베이즈주의는 독단론에 호의적인가?

윤 보 석

**【국문요약】** 로저 화이트는 베이즈주의에 기반을 두고 독단론에 대한 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의 논문,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호의성”, 에서 박일호는 화이트의 주장과 달리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입증이론 사이에 진정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박일호는 입증의 정도 그리고 호의성 관계와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며, 베이즈주의가 제대로 이해되었을 경우 베이즈주의주의는 독단론에 상당히 우호적인 결과를 산출한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나는 박일호가 도입하는 장치들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갈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아마 베이즈주의자는 독단론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갈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독단론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요어】** 독단론, 베이즈주의, 로저 화이트, 박일호, 호의성

## 1

박일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독단론과 베이즈주의가 심각한 긴장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임으로서 로저 화이트의 독단론 비판에 대한 한 흥미로운 대응을 제시한다.<sup>1)</sup> 과연 박일호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독단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부터 출발하자. 인식론에서의 독단론(dogmatism)은 정당화에 대한 한 입장으로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즉각적이고 파기가능한 정당화가 가능하다.

정당화가 즉각적(immediate)이라는 말은 그 정당화가 다른 믿음들의 정당화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 앞의 사과를 보고 “사과가 있다”라는 믿음을 형성했을 때, 만일 사과를 보는 경험 자체만으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지각 정당화가 즉각적임을 의미한다. 반면, 사과를 보는 경험만으로는 그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믿음들 (이를테면, 나의 지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사과처럼 생긴 사과 짝퉁이 아니다 등등의 배경 믿음들)이 정당할 때만 그 경험이 당신의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각 정당화는 즉각적이 아니다. 독단론은 여러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의 관심사는 특히 지각 믿음에 관한 독단론이다.

한편, 파기가능하다는 말은 추가적인 고려에 의해 정당화가 훼손되거나 격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파기가능한 또는 파기자

1) 박일호 (2014),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호의성”. 이하 존칭 생략.

(defeater, underminer, undercutter)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위의 사과 경우에 “요즘 사과처럼 생긴 장난감이 유행 한다”는 당신의 친구의 말이 파기자가 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사과를 보는 경험을 예전처럼 신뢰할 수 없다.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과가 아닐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과를 보는 경험을 더 이상 액면가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과처럼 생겼지만 사과가 아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현상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험이 제공하는 정당화는 추후 증거에 의해 파기될 가능성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전통적으로 감각 소여와 같은 대상에 대한 믿음들은 파기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졌으나, 외적 세계에 대한 일상적 지각 믿음들이 파기 가능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즉각성과 파기가능성을 각각 설명하였는데, 그 둘을 결합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현재 경험이 외적 세계에 대한 일상적 믿음을 파기가능 하지만 즉각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는가? 사과처럼 생겼지만 사과가 아닐 수도 있는 데 왜 나는 지금 내 앞에 사과가 있다고 믿는가? 그렇게 믿을 적절한 이유가 있는가? 사과처럼 생겼지만 사과가 아닐 여러 가능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사과가 있다고 정당하게 믿기 위해서는 사과처럼 생겼지만 사과가 아닐 여러 가능성들은 희박하다는 배경 믿음의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각 정당화에 대한 독단론에 따르면 그 답은 “필요하지 않다”이다. 비록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릴 가능성이 성립한다는 정보도 없다면, 지금 당신은 “사과가 있다”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단론의 한 사례로서 지각 독단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지각 정당화는 즉각적이고 파기가능하다.

프라이어를 비롯해 여러 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옹호하였다. 한편, 독단론에 대한 비판도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었다.<sup>2)</sup> 그 중 화이트의 베이즈주의적 비판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독단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함축을 가진다.

독단론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 앞에 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경우, 나는 그것이 가짜 손이 아니며, 나는 손이 없는 통속의 뇌가 아니며 등등을 최초로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 만일 내가 어떤 가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그 가설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손인 것처럼 나에게 현상된다면, 그것이 가짜 손이 아니라는 가설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하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바로 가짜 손이 현상되는 바와 일치함으로 그것이 가짜 손이라고 믿는 신뢰도는 **증가되어야하기** 때문이다.<sup>3)</sup>

화이트의 비판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우선 기호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H: 손이 있다.

F: 손처럼 생긴 플라스틱 가짜 손이 있다.

지각 독단론에 따르면, A는 H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런데 H는  $\sim F$ 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정당화에 관한 닫힘 원리(Justification Closure)에 의해  $\sim F$  또한 정당화될 것이다. F라는 가설이 정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화이트가

<sup>2)</sup> Cohen (2002), Wright (2002).

<sup>3)</sup> Roger White (2006), "Problems for Dogmatism", p. 531.

말하는 대로 ~F가 “최초로” 정당화된다고 해보자. 즉, ~F의 정당성은 H로 부터 전이되었다고 하자. 독단론이 여기까지 함축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A라는 현상은 애당초 H와 F 둘 다와 양립가능하다. A만으로는 그 둘 중 어느 가설이 성립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독단론에 따르면 우리는 일단 H를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F라는 가능성을 정당하게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된다. 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A만으로는 두 경쟁가설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 독단론은 이러한 한계를 마치 마술처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독단론의 이러한 함축이 정확히 왜 문제인가?

그 함축이 문제가 됨을 화이트의 방식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정당화를 확률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독단론은 정당화에 대한 이론이다. 정당화를 확률 개념과 연결하는 한 자연스러운 방식은 다음과 같다.

A가 H를 정당화한다면 오직 그 경우에  $P(H/A) > P(H)$ .

기존에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뢰도보다 A가 있음으로 해서 H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A가 H를 정당화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A가 ~F를 정당화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표상된다.

$P(\sim F/A) > P(\sim F)$

그런데, 어떤 증거가 한 명제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면, 그 명제의 부정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다.

$$P(F/A) < P(F)$$

독단론에 따르면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은 내가 가짜 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감소시킨다. 독단론이 이러한 함축을 가진다고 했을 때, 베이즈주의와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우선 다음 가정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P(A/H) \cong P(A/F) \cong 1$$

즉, H나 F의 가설이 성립할 경우 우리는 A를 예상할 수 있다. 손이나 가짜 손이 있다면 손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보일 것이다. 손이 있을 때나 가짜 손이 있을 때 당신이 손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확률은 거의 1에 가깝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확률은 낮다. 그렇다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P(A/H) > P(A)$$

$$P(A/F) > P(A)$$

내가 손이나 가짜 손을 가지고 있다면 손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분수들은 1보다 크다.

$$\frac{P(A/H)}{P(A)} \quad \frac{P(A/F)}{P(F)}$$

이를 다음 베이즈정리에 반영한다고 하자.

$$P(H/A) = \frac{P(H) P(A/H)}{P(A)}$$

$$P(F/A) = \frac{P(F) P(A/F)}{P(A)}$$

다음 결과가 산출된다.

$$P(H/A) > P(H)$$

$$P(F/A) > P(F)$$

오른쪽 식에 따르면 A는 F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즉,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은 가짜 손이 있을 확률을 높여 준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론이 함축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독단론에 따르면 가짜 손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고 따라서 가짜 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 화이트 비판의 요체이다. 독단론을 옹호하려는 사람은 베이즈주의와의 충돌을 해소할 부담을 안게 된다.

## 2

이제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박일호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박일호는 “베이즈주의와 지각적 독단론이 충돌한다는 주장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베이즈주의의 이론이 지각적 독단론을 옹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403)<sup>4)</sup>

박일호는 화이트 논문의 다음 특징에 주목한다. 화이트의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A는 H와 F 가설 둘 다 입증한다. 즉, A로 인해 그 두 가설의 신뢰도가 공히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H와 F는 대칭적이다. 화이트 논문의 어떤 전제들도 H와 F의 어떤 비대칭성을 요

4) 본문의 괄호안의 숫자는 박일호의 논문 쪽수임.

구하지 않는다. A의 기존 확률이 1보다 적다는 전제도 그러하고, 손이 있을 때나 가짜 손이 있을 때 당신이 손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확률은 거의 1에 가깝다는 전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박일호는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베이즈주의가 과연 H와 F를 구분할 수 없는가? 박일호의 생각은 만일 베이즈주의가 그 두 가설을 구분할 수 있다면, 베이즈주의와 독단론은 서로 충돌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그 구분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박일호에 따르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은 증거와 가설 사이의 입증 여부뿐 아니라 입증 정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입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증거와 가설뿐 아니라 배경지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자국 증거”는 특정 지역에 여우가 산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그런데 그 증거가 그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는 그 가설에 대한 기존 증거의 여부에 의존한다. 우리가 여우 가설에 대한 “배설물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경우, 발자국 증거가 여우 가설에 대한 신념도를 증가시키는 정도는 아무런 기존 증거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박일호의 논의를 따라 배경지식을 확률 값 1을 부여하는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입증 측도”는 배경지식에 상대적으로 어떤 증거가 어떤 가설의 신념도를 증가시키는 정도를 제공하는 함수이다. 적절한 입증 측도에 관한 여러 후보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후보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415 도표 참조) 박일호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원리는 호의성 원리이다.(412) 편의를 위해 호의성 원리를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보자.

배경지식에 상대적으로 A가 F보다 H에 대한 신념도를 더 증가

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A가 F보다 H에 더 호의적 (favoring)이다.

그런데 그룹 2에 속한 입증 측도들에 따르면, 가짜 손 가설 F의 사전 확률보다 진짜 손 가설 H의 사전 확률이 더 크다면, 지각 경험 A는 F보다 H에 대한 신념도를 더 증가시키며 따라서 F보다 H에 더 호의적이다. 즉, 배경지식에 따라 A는 H와 F를 차별화할 수 있다. 이는 H와 F를 대칭적으로 간주하는 화이트 논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박일호는 그룹 2에 속한 입증 측도가 더 훌륭한지는 논쟁거리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룹 2의 입증 측도를 배제해야 할 좋은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 H와 F의 구분가능성은 여전히 옹호될 수 있다.  $P(H)$ 가  $P(F)$ 보다 더 크다는 가정은 어떠한가? 박일호는 화이트의 논의에서 그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일호는 화이트 자신이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충돌을 보이기 위해 통계적 사실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지식에 따르면 진짜 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손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따라서 위의 가정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화이트의 논의는 곧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 인용문은 박일호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지각 경험 A가 가설 H뿐 아니라 가설 F를 입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각 경험 A가 가설 H와 F를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고려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에 따르면 지각 경험 A는 가짜 손 가설 F보다는 진짜 손 가설 H에 더 호의적이다. 따라서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 사이의 긴장 관계는 화이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420)

## 3

이제 박일호의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의 인용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박일호는 여전히 A가 F를 입증함을 인정한다. 즉, 다음 부등식을 받아들인다.

$$P(F/A) > P(F)$$

그런데 독단론에 따르면, 이 부등식은 거짓이다. 즉, 독단론에 따르면,  $P(F/A)$ 가  $P(F)$ 보다 더 작다. 이것이 화이트가 애당초 독단론이 베이즈주의와 상충한다는 주장의 근거였다. 과연 이 충돌이 해소되었는가?

박일호의 주장대로 비록 A가 H와 F를 둘 다 입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가 H와 F를 동일한 정도로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자. 즉, A가 F보다 H에 더 호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화이트의 비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가? 만일 화이트가 독단론을 A가 F보다 H에 더 호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한 베이즈주의를 딱히 두 가설 중 어느 것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면, 박일호의 논의는 화이트 비판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관하다. 왜냐하면 어떤 베이즈주의 입증 측도들에 따르면 A는 F보다 H에 호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는 자신이 제기하는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갈등은 훨씬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대응할 것 같다. 화이트의 베이즈주의는 다음 결과만 말하고 있다.

$$P(H/A) > P(H)$$

$$P(F/A) > P(F)$$

화이트의 베이즈주의는 A가 H와 F중 어느 것에 더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화이트가 베이즈주의를 A가 F보다 H에 호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암암리에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이트도 비록 A가 H와 F를 둘 다 입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후자보다 전자에 더 호의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화이트의 목적을 위해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화이트의 주장은 바로 그러한 섬세한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즉 호의성 정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위의 결과만으로 독단론과 충돌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왜 자신이 의존하지도 않는 전제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논변이 틀렸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대응할 것 같다. 더군다나 “입증 측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박일호의 말대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과 관련된 가장 격렬한 논쟁들 중 하나이라면 오히려 그러한 논쟁거리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의 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대응할 수 있다. 자신이 베이즈주의에서 도출하려는 논제는 A가 F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는 박일호도 위의 인용문에서 인정하고 있다. 화이트는 바로 그 논제가 독단론과의 충돌을 보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단론에 따르면 A는 결코 F를 입증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독단론에 따르면 A는  $\sim F$ 를 입증하거나 정당화한다.

만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이 두 가설을 차별화할 뿐 아니라 아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별화한다면 독단론과의 마찰은 해소될 것이다.

$$P(H/A) > P(H)$$

$$P(F/A) < P(F)$$

즉, 만일 적절한 입증 측도가 있어 A가 F를 반입증한다면, 그러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은 독단론의 예측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A가 F보다 H에 호의적이라고 해서 바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A가 F를 입증하는 한에서 여전히 충돌은 발생한다.<sup>5)</sup>

---

5) 이 논문의 한 심사자가 박일호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옹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1) 지각 경험은 진짜 손 가설을 입증한다, 즉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
- (2) 지각 경험은 가짜 손 가설을 입증한다, 즉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
- (3) 지각 경험이 진짜 손 가설의 확률을 높이는 정도는 가짜 손 가설의 확률을 높이는 정도보다 더 크다.
- (4) 진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이 가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보다 작지 않다.
- (5) 따라서, 지각 경험에 의해서 높아진 사후 확률은 진짜 손 가설이 가짜 손 가설보다 더 크다.
- (6) 한편, 어떤 가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이 특정한 역치(threshold)보다 더 커야 한다.
- (7) 따라서, 지각 경험이 진짜 손 가설을 정당화하지만 가짜 손 가설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각 경험이 진짜 손 가설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가짜 손 가설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 (8) 이에, 베이즈주의는 지각적 독단론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박일호가 인정하는 대로 지각 경험은 가짜 손 가설을 입증한다고 하자 (전제 (2)). 그리고 박일호의 호의성 논의에 따라 지각 경험이 진짜 손 가설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고 하자. 그런데 위 논변의 전제 (6)에 따르면, 입증이 정당화와 연결되기 위해선 특정한 역치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지각 경험이 두 가설을 다 입증한다고 해도, 진짜 손 가설만 정당화하고 가짜 손 가설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바로 독단론의 주장임으로 베이즈주의는 독단론의 주장을 최소한 허용한다는 것이 심사자의 주장이다. 이는 흥미로운 논변이며, 앞으로의 계속된 논의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논변은 문제가 없지 않다. 전제 (6)에서는 가설

또 다른 문제는 통계적 수치의 사용과 관련한 박일호의 지적이다. 화이트는 다음 방식으로도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긴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p$ 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라고 하고,  $f$ 를 가짜 손을 가진 사람들의 수, 그리고  $h$ 를 손을 가진 사람들의 수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 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률적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p$ ,  $f$ ,  $h$ 의 통계적 수치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가짜 손을 가지지 않을 확률은  $1-f/p$ 가 된다. 즉, 1에서  $f/p$ 를 뺀 값이 될 것이다. 이때 그 사람이 코트 주머니에서 손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서 흔들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손도 없고 그리고 가짜 손도 없는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때 그 사람

---

자체의 확률과 그것의 정당성이 논의된다. 즉, 어떤 가설이 정당화되기 위해 그 가설 자체의 확률이 어떤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자 자신이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일단 (6)을 수용한다고 해보자. 따라서 진짜 손 가설의 사후 확률은 그 선을 넘지만, 가짜 손 가설의 사후 확률은 그 선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로부터 도출되는 (7)에서는 가설 자체의 정당화가 아니고 어떤 증거가 어떤 가설을 정당화한다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런데 진짜 손 가설이 정당화된다는 것이 지각 경험이 진짜 손 가설을 정당화함을 함축하는가? 즉, 가설 자체가 정당화되었다고 해서 이로부터 어떤 증거가 그 가설을 정당화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는, 비록 가짜 손 가설 자체는 어떤 확률 값을 넘지 못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지각 경험이 그 가설을 정당화해 줄 수 없는가? 지각 경험이 가짜 손 가설을 지지해 주는 정도가 그 가설의 사후 확률이 어떤 정해진 확률 값을 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각 경험이 조금이나마 가짜 손 가설을 지지하기는 한다고 왜 말할 수 없는가? 어떤 증거가 어떤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그 증거가 그 가설의 확률을 얼마큼 높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역치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역치는 전제 (6)의 역치와 달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각 경험이 가짜 손 가설의 확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킨다면, 즉,  $P(F/A) > P(F)$  이라면, (이는 박일호와 심사자 공히 인정한다), 여전히 독단론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가짜 손을 가지지 않을 확률은 1에서  $f/f+h$ 를 뺀 값이 된다. 그런데  $f+h < p$ 이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f/f+h > f/p$$

이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1 - f/f+h < 1 - f/p$$

손을 보는 것 같은 관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짜 손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그 관찰 이전의 확률보다 감소된다. 이는 또 다시 독단론의 결론과 상충된다.

이러한 화이트의 논변으로 부터 박일호는 진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이 가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보다 더 크다는 통계적 사실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낸다. 사전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통계적 사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화이트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 논변에서 그가 말하는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치는 특정한 값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모집단 총원이 5000명이고 가짜 손을 가진 사람이 50명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신념도는  $1 - 0.01$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가 모집단에 대한 실제 통계치를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화이트는 손이 있는 사람들과 가짜 손이 있는 사람들 외에 아예 아무 손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가정한다. 즉, 모든 사람들의 수는 손 또는 가짜 손을 가진 사람들의 수보다 크다. 그러나 이 가정은 화이트 논변에 결정적이지 않다. 만일 모든 사람이 손 또는 가짜 손을 가지고 있다면, 즉,  $p = f + h$  이라면, 가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도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또한 독단론의 결론과 상충한다. 왜냐하면 독단론에 따르면 가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일호는 그의 논의를 위해 진짜 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손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통계적 사실에 호소한다. 반면, 화이트가 일반적인 통계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실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화이트의 논변이 통계적 사실에 대한 배경 지식에 호소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만일 화이트가 실제 배경지식에 호소하여 독단론과의 갈등을 도출하였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도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단론자가 가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에 대한 신념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할 때 이 신념도의 증가는 아무런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 지식에 의존할 때 신념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들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은 박일호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룹 2에 속한 입증 측도들에 따르면, 가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보다 진짜 손 가설의 사전 확률이 더 크다면 지각 경험은 F보다 H에 호의적이다.

필자는 이 호의성 주장 자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배경지식과 더불어 일상적인 판단을 정당화한다. 지각 믿음의 정당화는 배경 믿음들의 정당화에 의존한다. 만일 가짜 손은 어색하고 티가 나며 아직 정확히 손처럼 생긴 가짜 손은 만들기 어렵고 등의 우리 배경 믿음들이 정당하다면, 손처럼 생긴 저 사람의

손은 가짜가 아니라는 나의 믿음은 정당하다. 만일 그러한 일상적 배경 믿음들이 정당하지 않고, 정확히 손처럼 생긴 가짜 손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믿음이 정당하다면, 나는 저 사람의 손이 진짜 손이라고 정당하게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경험만으로는 일상적 판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다. ★는 이러한 관점과 잘 부합한다. 문제는 박일호가 베이즈주의와의 같등을 해소함으로서 독단론을 구하기 위해 도입하는 ★가 독단론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지각적 독단론은 배경 지식이나 배경 믿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경험만으로 일상적 판단이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 4

필자의 생각에 박일호의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독단론에 대한 다소 부정확한 이해에 있다.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같등 문제에 대한 박일호의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독단론에 따르면 A는 H와 F를 차별화한다. 화이트의 베이즈주의는 그 두 가설을 차별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은 그 두 가설을 차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화이트는 불필요하게 독단론과 마찰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베이즈주의를 왜곡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애당초 독단론에 따르면 A는 H와 F를 차별화한다는 가정은 어디서 오는가? 박일호는 프라이어의 논문(2000)에서 등장하는 다음 글에 주목한다.

당신의 p에 대한 믿음은 당신이 p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때는 언

제나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되며, 그 경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적 대안 가설을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손이 있다”는 믿음은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경험에 의해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되며, 그 경험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는 꿈을 꾸고 있다”나 혹은 “나는 악마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다” 등 “어떠한 회의적 대안 가설”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일호는 위 인용문에 많은 비중을 부여한다.

F가 프라이어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회의적 대안 가설들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프라이어는 손처럼 보이는 경험은 H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나 동일한 방식으로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화이트의 베이즈주의는 두 가설을 대칭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박일호의 생각은 만일 베이즈주의가 두 가설을 차별화할 수 있다면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마찰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라이어가 A가 동일한 방식으로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라이어는 “A가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박일호는 때로는 그렇게 이해한다. 즉,  $P(F/A)$ 가  $P(F)$ 보다 크지 않다고 해석한다.(406) 아예 A가 F를 입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화이트의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입증관계가 성립하고 그래서 마찰이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박일호의 베이즈주의는 A와 F사이에 입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박일호의 전략은 아니다.

박일호는 프라이어의 말을 “A가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긴 하는데 동일한 방식은 아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해석이 박일호의 전략에 부합한다. A가 H와 F

을 공히 정당화하기는 하는데 후자보다 전자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화이트를 비롯한 독단론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기 전 프라이어가 한 말을 그 비판에 대응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프라이어의 말을 그렇게 해석할 독립적인 근거가 있는가? 동일한 방식이든 아니든, A가 F를 비롯한 회의적 가설들을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하는가? 만일 프라이어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독단론은 베이즈주의와 무관하게 내적인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 A가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해보자. A는 H를 정당화하고 따라서  $\sim F$ 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A는 어떤 명제와 그 부정을 동시에 정당화하게 된다.

필자는 여기서 A가 F를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손처럼 보이는 경험은 가짜 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양립가능하다. 만일 누가 손처럼 보이는 경험으로부터 가짜 손이 있다는 믿음을 형성한다면 독단론자는 이 사람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가짜 손이 있다면 예상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은 자신이 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 있다는 증거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따라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가짜 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 즉각적이고 과기가능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독단론자의 논리에 의거해서 A가 F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독단론자는 이러한 주장을 배격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아마 독단론자는 A가 F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A가 H와 양립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물론 A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H를 정당화한다. 그렇다면 독단론자는 “A와 양립가능한 여러 가설들이 있을 경우 그 경험은 각 가설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독단론자의 핵심적 관심사는 “A와 양립가능한 여러 가설들이 있을 경우 그 경험은 그 중 어떤 가설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부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화이트를 비롯한 많은 비판자들을 제기하는 문제의 발단이 있다. 일단 A가 H를 정당화한다고 보면, 이로부터  $\sim F$ 가 논리적으로 도출되고 이는 F의 정당화에 대한 상충된 판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박일호가 주목하는 프라이어의 인용문은 딱히 프라이어 자신이 독단론의 여러 문제들을 분류하고 대응하는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박일호가 부여하는바 그러한 비중이 주어져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5

필자는 독단론과 베이즈주의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해소 방안들이 제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성에 대한 닫힘 원리를 고려할 수 있다. 닫힘 원리를 받아들이는 한  $\sim F$ 가 정당화된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독단론자가 정당성에 대한 닫힘 원리를 부정한다면 화이트의 비판뿐 아니라 여러 비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닫힘 원리를 부정하는 독단론자는 찾기 어렵다. 또 다른 시도는 소위 정당성 전이(warrant transmission)를 재고하는 것이다. 정당성 전이는 닫힘 원리보다 강하다.  $\sim F$ 가 정당하기는 하나 그것의 정당성이 반드시 A로부터 전이된 것이 아니라면 A가 최초로  $\sim F$ 를 정당화한 것은 아님으로  $P(\sim F/A)$ 가  $P(\sim F)$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하

면 정당성 전이 실패를 설명해야 한다. 과연 독단론과 양립가능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sup>6)</sup>

위의 방식들은 화이트 비판뿐 아니라 독단론 일반에 관한 논의에 포함된다. 화이트의 비판에 특화된 여러 반응들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록 박일호는 논의를 위해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정당화” 개념을 베イズ주의의 “입증” 개념과 대응하는 것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어떤 가설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입수되면 반드시 그 가설의 확률이 증가되어야 하나? 만일 당신이 실수에 의해 그 가설에 대한 선행 신뢰도가 너무 높았을 경우, 그 가설에 대한 증거의 추가가 선행 신뢰도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독단론이 주목하는 잠정적인 정당화는 베イズ주의가 고려하는 “모든 것이 다 고려된(all things considered)” 정당화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sup>7)</sup>

독단론과 베イズ주의의 충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독단론과 베イズ주의적 틀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 연결이 부드럽지만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경험에 대한 인식의 필요 여부이다. 베イズ주의는 유관한 증거들에 기반을 둔 주관적 신념의 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경우 우리는 유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증거들을 우리의 주관적 신념도 변화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단론에 따르면 p처럼 보이는 경험 자체가 p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해 준다. 즉, 내가 나의 경험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손이 있는 것 같은 시각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명제적 내용이 참이라면, 나는 세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러저러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과연 내가 실제로 그러한 경험

---

6) James Pryor (2012) 참조.

7) James Pryor (2013) 참조.

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는가? 프라이어는 물론 이러한 질문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경험을 포함한 심적 상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물론 인식론의 문제이다. 그러나 프라이어는 위와 같은 질문이 자신의 이론에 핵심적이지 않다고 본다. 심적 상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일상적 지각 믿음의 정당화보다 더 기초적이거나 토대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고는 전통적 토대론의 유산이다. 경험을 포함한 심적 상태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궁극적으로 경험에서 올 수 있다. 즉 경험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경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험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어는  $p$ 처럼 보이는 경험 자체가  $p$ 라는 일상적 외적 명제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이고 잠정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독단론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한다. 즉, 경험에 대한 인식이 독단론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 반면,  $p$ 에 대한 신뢰도의 베이지주의적 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경험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베이지주의적 결과를 가지고 독단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독단론이 요구하지 않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충돌 해소를 위해 여러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단지, 만일 독단론과 베이지주의가 양립가능하다면, 그 방식은 박일호가 제시하는 해결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아마 베이지주의자는 독단론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갈등을 인정하고 독단론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박일호 (2014),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호의성”, 『논리연구』 17 (3), pp. 399-423.
- Cohen, S. (2002), “Basic Knowledge and the Problem of Easy Knowledg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2), pp. 309-329.
- Pryor, J. (2000), “The Skeptic and the Dogmatist”, *Nous* 34 (4), pp. 517-549.
- Pryor, J. (2004),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Philosophical Issues* 14, *Epistemology*, pp. 349-378.
- Pryor, J. (2012), “When Warrant Transmits”, in Annelisa Coliva, ed., *Mind, Meaning and Knowledge: Themes from the Philosophy of Crispin W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 Pryor, J. (2013), “Problems for Credulism”, in *Seemings and Justification*, edited by Chris Tucker,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5.
- White, R. (2006), “Problems for Dogmatism”, *Philosophical Studies* 131, pp. 525-557.
- Wright, C. (2002),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G. E. Moore and John McDowel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2), pp. 1-23.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Ewha Woman's University, Philosophy Department

[bosuk@ewha.ac.kr](mailto:bosuk@ewha.ac.kr)

## Is Bayesianism Favorable to Dogmatism?

Bosuk Yoon

---

Roger White raised an objection, one based on Bayesianism, to the dogmatist view of perceptual justification. In his paper, “Perceptual Dogmatism and Bayesian Favoring”, Ilho Park tries to show, contra Roger White, that there is no real conflict between Perceptual dogmatism and Bayesianian theory of confirmation. For this purpose, Park brings in the notions of the degree of confirmation and the favoring relation and argues that Bayesian theory, when properly understood, can yield results that are quite favorable to dogmatism. I don’t think, however, that the devices that he employs actually deliver what he promises. The conflict is yet to be resolved. Probably, Bayesian theorists may be better off if they, instead of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 consider the option of simply rejecting dogmatism.

Key Words: dogmatism, Bayesianism, Roger White, Ilho Park, favoring